

● 교육 - 좋은 아버지 모임들

“무게만 잡는 아버지는 인기 없어요”

YMCA 등의 단체에서 모임 만들어, 민주적인 아빠역할 배워

변화되는 세대에 알맞은 아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지난달 초순에 시작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과 ‘아버지 교실’은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정도의 자녀를 둔 30~40대 신세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은 동화작가 강우현 씨가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 ‘아버지가 쓰고 그리는 그림책’ 강좌에 참가한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11월 7일 발족한 모임.

자녀교육을 어머니의 몫으로만 여기지 않고 아버지들이 직접 참여해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는 이 모임에는 만30세 이상 49세까지의 아버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 7시에 월례모임을 갖고 ‘아버지 소식’지를 발간해 각종 정보나 소식을 알려주는 이 모임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단위의 특별행사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우현 씨는 “세상이 갈수록 삭막하고 험한 것은 이 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내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가장이야말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기초”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난달 5일 부천 YMCA가 개설한 ‘아버지 교실’은 직장일로 바쁜 28명의 아버지가 참여해 활기를 띠었다. 한달 과정으로 제1기 수료식을 마친 이 모임에는 산업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 가족사이의 의사전달, 부모역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한 부천 YMCA ‘아버지 교실’

의 이해, 부부 성장론 등을 주제로 8차례의 강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아버지 교실에 참석한 아버지들의 공통된 의견은 여기에 참가하면서 권위 의식을 버리고

자상하게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자 아이들이 엄마보다 자신을 더 따르더라는 것이다.

“가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무게를 잡았는데 이 모임을 통해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

로서 자녀와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박상곤(33) 씨는 자신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강의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 모임을 주최한 부천 YMCA 이신철 간사는 “아이들과 아내의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상 아버지들도 그에 발맞춰 민주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모임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기를 마친 부천 YMCA의 아버지 교실은 내년 상반기에 두차례, 하반기에 두차례 정도 다시 열 계획이다.

〈이은희 기자〉